

국가어항 기본시설물 97% 이상이 양호

2008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최상 40%, 양호 57%, 보통 3%

104개 국가어항 684개 시설물 대상



▲ 어항시설물 점검 장면

○ 리나라 국가어항 시설물들의 안전 상태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2008년 상반기 국가어항시설물의 안전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본 시설물의 97% 이상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월초에서 6월 말까지 104개 국가어항의 기본시설물인 물양장, 방파제, 안벽, 방사제, 호안 등을 684개로 세분화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74개(40.1%) 시설물이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 388개(56.7%) 시설물이 양호한 상태인 B등급, 19개(2.8%) 시설물이 구조물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인 C등급, 3개(0.4%)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그리고 즉시 사용금지를 요하는 E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의 주요 대상은 어항 외곽시설의 상치콘크리트, 피복석, 테트라포드(T.T.P) 상태 등과 접안시설의 상치콘크리트, 포장, 블럭, 방층재, 계선주 등이었으며, 새로 완공된 시설물을 추가하고 구조물의 이력과 기능을 구분하여 세분화함에 따라 작년 하반기 681개 시설물에 비해 3개소가 늘어났다.

협회가 수행하는 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은 어촌·어항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항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유지관리와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향후 어항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며, 국가어항 기본시설물의 이력이 담긴 안전점검 대장은 On-Line 『어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fishingport.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 수상마을 해외 선진지 견학 시즈오카현, 카나가와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 미나미이즈 마을 수산물가공체험

어촌을 견학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어촌관광 담당 공무원, 어업인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해외선진지 견학은 선진지역의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어촌관광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어촌관광 사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주된 목적이다.

이번에 방문할 견학지인 시즈오카현 미나미이즈 마을, 카나가와현 마쯔와 마을, 니노미야 마을과 동경도의 오다이바 등은 일본 관동지역에서 어촌체험관광과 해양관광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장을 방문·견학하고, 방문 지역의 공무원 및 어협, 지역 주민들로부터 개발과정, 문제점,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현지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동경도 인근 시즈오카현, 카나가와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제2차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 수상마을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

이번 견학에는 어촌체험마을 혁신경진대회 수상마을 운영리더 각1명(마을 자체에서 선발, 전년도 참가자는 제외), 한국어촌어항협회 인솔자, 자체예산으로 선진

日本 어선 20만척 15일 일제히 휴어

4천명이 넘는 어업자들 동경 히비야공원에 집결 유가급등에 따른 정부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촉구



대한 비통한 마음을 대변하였다. 같은 날 동경 히비야(日比谷)공원 야외음악당에서는 일본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어업자 대표 등 4,000여명이 JF전어련, 대일본수산회가 공동 개최한 '어업경영 위기돌파 전국어민대회'에 참가하여 유가급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후 농림수산성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일본 어민들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다. 유가급등으로 출어때 마다 적자조업을 면치 못하던 일본의 어민들이 15일 하루 일제히 휴어에 들어갔다. 이날 JF전어련,

대일본수산회를 비롯하여 전국근해 가다랭이·참치어업협회 등 17개 생산자단체에 소속되어있는 20만척은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일제히 기적을 울리고 휴어에

또한, JF전어련 회장 및 어업자대표는 거리행진후 농림수산대신, 정제산업대신 등을 방문하여 어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전남도와 함께 남도어촌 체험행사 추진

- 남도 어촌의 우수한 자원성 홍보 기회
- 전체경비 50% 지원



▲ 2007 무안 해제 송계마을 어촌마을 체험행사

뛰어난 자원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지 못해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았던 전라남도의 어촌을 집중 소개하는 '남도어촌 체험행사'가 오는 8월초부터 10월말까지 15회에 걸쳐 실시된다.

전라남도가 추천하는 어촌마을 5곳인 영광 두우마을, 신안 수락마을, 해남 오산마을, 강진 하저마을, 고흥 남성마을에 각3회씩 집중하여 실시되는 이번행사는 현재 협회가 진행중인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남도어촌체험행사는

1박2일을 기본으로 하여 마을별로 특색있는 체험을 개발하여 청정해역에 나는 웰빙수산물 시식은 물론, 꼬막캐기, 주꾸미잡이, 후릿그물질, 염전체험, 민장대낚시, 독살체험, 개막이 체험 등 이번 행사를 통하지 않으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어로체험과 더불어 갯벌생태교육, 유람선관광, 주변관광지 관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남도과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경비의 50%를 지원하여 저렴한 참가비로 우리 어촌의 알짜배기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 또는 전화 080-500-8579로 하면된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전라남도과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전라남도 어촌마을 5곳으로 도시민들을 초대한다.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그동안